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월



2024. 가을호

174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2024년 가을호 통권 174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4년 11월 25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편집위원 유한별 정유주(내부) 김보영 김현지 이주원 이지혜(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펴내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침저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가을호에는 45주년을 맞이한 부마민주항쟁의 기념식과 기념전시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 유일의 상인 제33회 민주시민상 현장을 담았습니다. 여름내 푸르렀던 잎사귀들이 낙엽으로 하나둘 떨어지며 발로 밟는 거리마다 노랑고 붉습니다. 부당한 정의에 맞서 싸웠던 부마민주항쟁의 정신 역시 어둠 속에서도 형형색색의 불을 밝히는 민주공원 민주의 햇불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반독재는 물론 항일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민주공원 가까이에 자리한 광복기념관을 소개하며 산복도로 일대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공간을 재조명합니다. 동시에 산복도로가 가진 단점과 부정적인 인식을 기대로 바꾸어 낸 사례를 통해 민주공원이 시민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봅니다.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여는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이야기> 공모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진과 이야기도 소식지에 펼쳐보입니다. 어린 시절 민주공원을 찾았던 이야기나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민주공원을 산책하며 찍은 사진 등 소중한 추억을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모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겨울호에서도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아쉽게도 제33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현장의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시상식 당일 개인부문 수상자와 단체부문 수상자는 서로를 축하하며 큰 응원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민주주의의 길에서 무척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소식지를 보시는 모든 분께 함께해주심에 감사한 마음과 응원을 전하며 가을호를 펴냅니다. 🍂



목 차

04

- 4대항쟁**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 –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제33회 민주시민상
민고 듣는 '블랙 플레이리스트', 매년 시월 재생됩니다
– <민주시민상 33주년 기념 그때 그 시절 부마길 야행
그리고 민주시민상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금지곡 음악회> _배가영
부마,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다 – 2024 부마민주항쟁 아카이브 순회전
폐허를 응시하라: 전쟁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로
– 10월 평화포럼 6월민주항쟁 37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_정대성

14

- 민주공원** 산복도로 동네친구 집 하이엔드하우스 _정하연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❶ 부산광복기념관
2회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사랑으로 가득찼던 수많은 밤의 회상 – Memories of Many Nights of Love>

28

- 더: 나은** 답페이크 성범죄는 되풀이될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_조경숙

32

- 회원과 함께**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이야기 _유한별
기억해야 할 사람들: 민주열사 명패달기 프로젝트

38

- 민주사랑방**

40

- 민주알림방**

10.16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라는 이름으로 10월 16일(수) 오전 9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0월 16일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정부가 기념식을 주관한 이후 여섯 번째로 열린 기념식입니다.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습니다.

기념식의 주제인 '부마의 불꽃, 시대를 넘어'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불꽃임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되새기는 경과보고 영상과 당시를 재현한 창작 뮤지컬 '1979 기억의 조각'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념사를 했으며 홍남표 창원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나 부산, 창원시 민과 경남도민이 자유롭게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33회 민주시민상

10월 16일(수) 7시 서면에서 제33회 민주시민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개인부문 수상자는 가수 우창수, 단체부문 수상자는 탈핵 부산시민연대입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992년 제1회 민주시민상 시상부터 민주, 인권, 평화, 통일, 생태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거나, 최근의 가장 뜨거운 민주주의 이슈에 치열하게 대응하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지난해까지 27명의 개인과 28개의 단체에 민주시민상을 시상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5시부터 역대 민주시민상 수상자 간담회도 열려 민주시민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러 모습의 국가 폭력에 맞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역대 민주시민상 수상자들의 활동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

사진 위에서부터

- 제33회 민주시민상 개인/단체부문 수상자와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 아이씨밴드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 역대 민주시민상 수상자 간담회





가수 우창수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가수 우창수는 1990년 부산 놀이패 '일터'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투쟁이 있는 곳 어디든 달려가 노동과 생명, 평화를 위해 연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와 노래로 문화제를 기획하여 2011년 한진

중공업 농성장부터 2024년 구미 아사히 글라스 농성장까지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찾아 투쟁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의 예술인과 지역 현장 문화패와 함께 시대의 문제를 제기하며 2020년부터 5년째 한 달에 한번 창원 용호동 문화의 거리에서 노동, 환경, 안전, 언론 등 매번 주제를 달리하며 거리에서 문화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는 지역의 어린이와 함께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을 만들어 경남 창원군 우포늪 일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 '미안마 난민 긴급 식량을 위한 대구 토크 콘서트' 등 온 생명과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생태적 가치를 위해 연대를 멈추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33회 민주시민상 개인부문 수상자인 우창수 가수가 현장에서 개똥이어린이예술단과 탈핵을 외치는 노래를 불렀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체로 지난 13년 동안 부산지역 탈핵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형성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고준위핵폐기물 관련한 현안 대응과 탈핵 정책 제안과 제도화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탈핵연대 활동(기장해수담수 공급반대/밀양 초고압 송

전탑 건설저지/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반대/울산북구 월성 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갑상선암 공동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 부정의한 에너지 시스템에 맞서는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시민 캠페인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부산 시민에게 탈핵, 안전한 세상,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공동대표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 공동집행위원장 단체: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참여연대, 부산한살림)에서는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가득 안고서 만나고 연결하며 앞으로 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강연주 활동가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믿고 듣는 ‘블랙 플레이리스트’, 매년 시월 재생됩니다

– <민주시민상 33주년 기념 그때 그 시절 부마길 야행
그리고 민주시민상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금지곡 음악회>

배가영 | 싱어송라이터 온가영

얼마 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는데요, SNS에서 본 어떤 클립이 생각이 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낙인된 예술인들을 누가 선정했는지 안목이 참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웃음) 박찬욱, 봉준호 감독부터 한강 작가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예술인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깐요. 역사적 사실을, 사회의 모순을 예술의 언어로 전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두려워했나 봅니다.

그래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민주시민상 33주년 행사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동안 중히 여겼던 사상식 이전에 부산 시민, 항쟁의 흔적을 기억하고 싶은 어머니와 아버지들, 그저 어딘가 견고 싶은 아이들, 저처럼 <금지곡 음악회>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에 이끌려 나온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시도의 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거리마다 흩어져 있는 항쟁 흔적을 해설사의 묘사와 함께 들으며 <부마길 야행>을 다녀온 시민들은 민주공원 꼭대기, ‘민주의 햇불’ 앞에 모였습니다. 붉은 노을을 등에 지고 기타를 맨 가수가 남색 모자 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바로 민중가수 박영순 선배님이십니다.

여느 때와 같이 ‘난 늘 니가 좋다’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들었어요.(웃음) 무려 제30회 민주시민상 수상자이고, 부산에 몇 없는 블랙리스트 예술인이자, 아직도 연대의 현장마다 빠짐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분명 따로 주인이 있는 곡인데도 영순 선배의 목소리가 아닌 ‘난 늘 니가 좋다’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부르고 불러, 이어, 흘러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는 것이 음악이겠지요.

시그니처 곡이 끝난 후 본격적인 <금지곡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오래된 금지곡은 ‘아리랑’이라는 거. 일제강점기에 이 곡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한을 부정한다는 뜻 아닐까요. 두 번째로 부른 금지곡 ‘사노라면’은 원제목이 ‘내일은 해가 뜬다’였다고 합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오늘이 어때서! 너 금지곡!” 이렇게 금지곡이 되었다니 참 유치하지요? 덕분에 오히려 9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많이 불려 지

지난 10월 12일(토)
<민주시민상 33주년 기념
그때 그 시절 부마길 야행
그리고 민주시민상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금지곡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45주년,
민주시민상 33주년을 기념하여
부마길표석에서 만나
대각사, 미문화원(현 부산근현대
역사관), 부산중부교회 등
그때 그 시절 부마민주항쟁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전망대에 도란도란 앉아
민주시민상 역대 수상자인
박영순 님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당시
금지곡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부마길 야행 모습과
금지곡 음악회 현장을
지면에 펼쳐 보입니다.
–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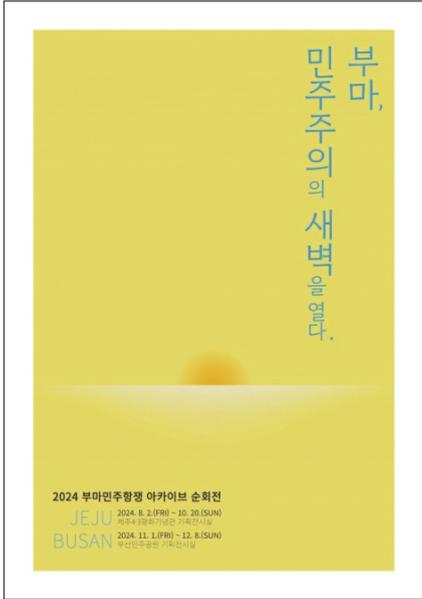


금지곡이 유명한 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매한 모든 곡이 금지곡이 된 가수 김민기와 한태수도 있습니다. 그중 지금도 많이들 알고 있는 ‘행복의 나라로’라는 곡도 “행복의 나라가 따로 있다고? 세상을 나쁘게 바라 보는구나!” 하며 금지곡이 되었다고 해요. 영순 선배의 금지곡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시절의 금지곡 지정 이유들이 요즘의 SNS에서 종종 보이는 혐오 댓글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깔로 나누고, 성별로 나눠 이미 낙인찍고 논쟁은 없이 혐오만 던지는 상황이요.

어느덧 공연은 막바지로 흘러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금지한다 낙인 찍혔던 곡들이 결국 입

으로 전해져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것처럼 혐오와 배제 속에서도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엄혹했던 그 시절, 금지로 입막음했던 부조리를 깨뜨린 부마민주항쟁을 다 함께 모여 음악으로 기억하고 소환하는 시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블랙 플레이리스트 음감회’ 시간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영순 선배의 뒤에는 붉은 민주의 횃불이 우뚝 솟아 타 오릅니다. 돛자리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대신해 산자락의 귀뚜라미들은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부르지요. 매년 시월의 하루쯤은 우리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귀뚜라미들과 더 많은 노래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불리, 이어, 흘러 기억에 남기고 가슴에 남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부마,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다

— 2024 부마민주항쟁 아카이브 순회전

2024 부마민주항쟁 아카이브 순회전 <부마,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다.>가 11월 1일(금)부터 12월 8일(일)까지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전시에 앞서 8월 2일(금)부터 10월 20일(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수집한 사료인 선언문, 사진, 취재원고, 일기장에서부터 항쟁 참가자들의 구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회화작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웹툰, 일러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불타올랐던 부마민주항쟁의 사진이나 기록은 매우 부족합니다. 다각도의 발굴과 2차 콘텐츠 생산을 통해 그동안 알려진 인물과 내용뿐만 아니라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노동자, 학생, 시민의 이야기도 웹툰과 삽화로 소개합니다. 📖





"청년 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심술궂은 독재자에 의해 고문받고 있는데도,
과연 좌시할 수 있는가."

동간들의 이야기 : 부산

민주 선전물

선전물

유신철폐!

항쟁의 장소

그날의 사진첩

폐허를 응시하라: 전쟁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로

-10월 평화포럼 6월민주항쟁 37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정대성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10월 24일(목) 오후 3시부터 6월민주항쟁 37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10월 평화포럼 <폐허를 응시하라 -전쟁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로>가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 민주주의사회연구소가 주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수행했습니다.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정대성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의 개회사, 환영사에 이어 이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의 <21세기 글로벌 평화 미로와 한반도 평화 협로>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제1발표로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과 평화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노용석 교수가 토론을 했습니다. 제2발표로는 허영선 전 제주4·3연구소 소장이 <제주 4.3과 여성 인권, 그리고 트라우마 -제주4.3 경험 여성들의 기억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박경연 부산대 사학과 교수가 토론을 했습니다.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편집자 주

바야흐로 전쟁과 학살의 시대입니다. 평화는 잡히지 않는 유토피아처럼 저 멀리 한없이 멀어져가고 있는 듯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은 '전쟁터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잔치고 기자회견이냐며 부친의 고향 마을 잔치까지 한사코 말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으로 얼룩지고 평화는 요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자지구에서도 전

쟁과 학살은 자본주의의 고부가가치 상품인 무기를 팔고 소비하는 대가로 인간의 죽음을 바벨탑처럼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통해 포탄을 지원한 시간을 지나 이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동맹'으로의 일방통행의 결과, 남과 북이 공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점점 더 연루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동맹군으로 개입하고, 남한에 일본자위대가 출동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남북이 주체적으로 장악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 드는 듯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우리 삶의 근본이 순식간에 백척간두의 위기와 재앙으로 급변할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주제, '폐허를 응시하라: 전쟁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역사로'는 너무도 시의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 속 전쟁의 폐허를 응시하고 성찰하는 것은 오늘의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기 선생님의 기조 발표는 20세기 역사를 토대로 21세기 전쟁과 평화의 메커니즘, 특히 동서독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 위기에 처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지는 두 번의 발표는 한편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쟁 기념 방식과 내용'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제주 4.3에서의 여성 인권과 트라우마'를 통해,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대한 뜻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



금, 위기의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토론과 희망의 모색을 위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쟁과 학살의 시기이기에, 더더욱 희망의 이야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전설적인 록 밴드 비틀스의 왼쪽 날개였던 존 레논은 대표곡 <이미진>에서 전쟁과 억압이 없는 세상을 'imagine', 즉 '상상하자'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하지만 무엇보다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아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존 레논은 자신이 <이미진>에서 노래한 국경도, 전쟁도, 소유도 없는 곳의 이름을,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뜻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뉴New'토피아, 즉 새로운 곳, '새로운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전과 평화를 노래한 불후의 명곡 <이미진>이 나온 1971년은 올해 작곡한 김민기의 <아침이슬>이 세상이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 질곡의 한국현대사를 수없이 수놓은 시위의 현장에서 밤새워 불려진 '조용한 저항가요'의 대명사 아침이슬은 내용도 형식도 존 레논의 이미진과 닮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밝아오는 '새로운 세상', 즉 '뉴토피아'를 나지막이, 하지만 결연하게 꿈꾸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인식과 성찰을 통해서만 솟아날 것입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전쟁의 폐허를 응시하며, 평화와 희망의 길을 모색하고 노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산복도로 동네친구 집 하이앤드하우스

정하연 | 하이앤드하우스 대표

산복도로의 산복은 '산의 복판(허리)'를 뜻하는 용어로 일제감점기와 피난시절을 거쳐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은 대부분이 주거지에 해당하는데 이웃과 인사하고 서로를 알고 지낼 수 있어 정겹게 느껴졌다. 산복도로로 오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내가 막연하게 이웃의 정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기획자인 나는 내가 살고있는 부산에서 그럴 수 있는 곳을 찾고, 그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다. 유연한 계기로 산복도로 동네와 연을 맺은 후 2020년부터 이곳에서 살며,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은 영주동이었다. 영주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청년세대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와 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의뢰받고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동네 청년들이 모였고, 지역 내에서의 커뮤니티를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지방으로 떠나는데, 지역에서의 동네친구 유무에 따라 동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했다. 좀 더 지역에서 거점을 두고 관계망을 만드는 활동하고 싶어졌다. 원도심이라



청년공간운영_영주세탁소

구분

인식

기대

지역
청년

- 친구들과 약속을 하면 친구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멀리까지 나가야 해요.
- 사는 지역으로 집값을 비교하고, 오래된 동네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는 곳을 물어보면 말하기 꺼려져요.
- 직장 때문에 근처로 구했는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 산복도로는 역사 자원이 많은 곳이라 우리 동네가 자랑스러워요.
- 북항대교랑 부산을 다 볼 수 있는 뷰가 너무 좋죠. 그런데, 교통과 주차시설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 1인 가구라 식재료가 항상 남아서 음식을 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망이 필요해요.

어르신

-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좋고,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 옛날엔 잘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전통시장도 죽어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싶어요.
- 젊은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하나요... 편한 데 살고 싶지.

- 지금은 나이 든 사람들 밖에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 계속해서 우리동네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역
방문자

- 사실 이 동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처음 와봤어요.
- 동네가 이웃간에 친근함이 느껴지고 옛날 골목 같은 모습이라 신기해요.

- 하고 싶은 일들을 실행해볼 수 있는 곳이라면, 동네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동네를 소개하고 싶어요.

고 하면 낡고,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있고 그런 인식은 편견과 지역의 격차를 심화하게 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다. 3년간 청년공간을 운영하며 거점을 두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점차 데이터가 쌓였다. 정리를 하자면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어르신), 지역청년, 지역방문자의 인식은 위의 표와 같았다.

지역에 오랫동안 살며 변천사를 겪은 주민들은 지역이 부흥하던 시기 자부심이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지역의 청년은 살고있는 동네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또 공간이 매개가 되어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의외의 발견과 지역 내에서 관계를 만들고 관심사를 진행했던 긍정적인 기억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졌다. 공간 운영이 종료가 되고 내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좀 더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의 특징을 봤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있는 부산 중구는 흔히 관광지로 많이 알고 있다. 자갈치, 용두산공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있고 관내의 부평깡통시장, 국제시장 등 큰 시장과 볼거리들 덕분에 내·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이런 도심의 관광지와 산복도로 주거지는 계단을 두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도 하다. 분리된 느낌이라랄까. 주민들은 상권들이 많은 도심에서 장사를 하고 산복도로 주거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 원도심은



하이앤드하우스 외관

도심과 주거지의 변화도 세월이 지나며 발생하게 되는데, 변화가었던 남포동 일대는 옛날보다는 침체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뉴스에서나 당사자의 입으로나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또한 산복도로 주거지는 낙후된 주거시설들과 경사지이다 보니 개발의 어려운 점이 있어 인프라 좋은 곳으로 떠나는 등 빈집들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주거지 빈집들을 활용하여 스테이를 조성하여 사람들의 머무르는 시간을 늘린다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션이 나에게 생겨났다. 한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고자 보수동 책방골목 바로 위 협소주택에 하이앤드하우스를 만들었다.

하이앤드하우스는 계단 바로 아래 보수동책방골목 - 부평강동시장 - 국제시장 - 남포동 - 자갈치 관광지이고 계단을 올라오면 산복도로 주거지 초입이다. 총 세 개 층으로 되어있는 공간은 '1층: 스테이, 2층: 카페&그로서리샵, 3층: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역에 놀러와 머무르며 공간과 서비스로 하여금 지역과 연결될 수 있길 바라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스테이에서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원도심 감성을 담아 빈티지하고 아늑하게 꾸몄다. 2층인 카페가 도로에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는 지역의 매력적인 장소를 안내하고 숙소가 확장되

면 숙박을 안내할 수 있는 리셉션 공간이자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두었다. 3층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둔 이유는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모임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공간에 머무르며 지역과 연결될 거점공간으로써 의미를 두었듯 '하이앤드하우스' 이름도 마찬가지다. '하이'는 내가 활동하며 사용하는 별칭이다. 지역에서 친근하게 연결하는 이의 역할을 하고자 나의 이름에 초성을 따서 지었다. 공간이 동네친구인 하이가 안내자가 되어 지역과 연결한다는 의미이다. 가게의 상품으로는 산복도로 및 원도심과 연관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산복도로 이미지가 담긴 책모양 페이퍼 디퓨저를 상품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는 선보일 예정이다.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도심과 산복도로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엔 산복도로의 각 스팟들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방문율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 숙소에 오시는 외국인 손님도 늘어나고 있다. 점차적으로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동네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겼다. 영주동 초입 산복도로 위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생

졌다. 시설의 정식 명칭은 ‘영주 오름길 엘리베이터’이다. 계단이 많고 주거 경사지인 산복도로에 부산역 인근 장소부터 민주공원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이 만들어졌다. 올해 2024년 시설이 완공되고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리베이터 대작전’이라는 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구불구불 롤러코스터 같은 시설이 옛날 청룡열차를 연상하기도 하여 ‘용’을 매개로 게임과 미션을 프로그램에 녹였다. 봄, 여름, 가을 시즌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골목에서 미션과 스냅사진을 찍어 주었다. 특히 봄과 가을은 민주공원으로 올라가 피크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올라오는 길마다 멋진 경관이 어우러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민주공원에서 마무리를 하며 몰랐던 장소를 알게 되어 좋고 다음에도 종종 와서 아이들과 즐겨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민주공원 피크닉(용리베이터 투어)

민주공원은 산책로, 숲길, 쉼터 등 예쁜 곳이 참 많이 있는 곳이라 올 때마다 느끼곤 한다. 안쪽으로 들어와 곳곳의 장소들을 알기 전에는 멀리 햇불 조형물을 보고 저기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나서야 민주공원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았다. ‘방문하여 장소를 경험하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사실 민주공원과 연결되는 산복도로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 골목마다 매력이 다 다르다. 산복도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주하늘 전망대, 산책로를 따라 가다보면 연결된 정자가 있는 데크, 산복도로 위에 줄지어진 예쁜 카페들, 민주공원 안쪽 특이하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건물인 민주항쟁기념관 등 연결되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다. 또한 봄이 오면 민주공원 아래 겁벗꽃동산뿐만 아니라 중앙공원 내 숲길이나 대한해협전승비 안쪽으로 들어가면 돛자리를 깔고 겁벗꽃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공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매개는 장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장소로 이끄는 사람이자, 장소에 머무는 동안의 기분 좋은 기억이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또다시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는 이유라 믿는다. 🏰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③

항거와 환희의 시간을 기억하는 부산광복기념관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에 들어서면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연표가 있습니다. 연표의 시작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항일운동에서부터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공원 바로 아래에는 부산 지역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부산광복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세 번째로 부산광복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부산광복기념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될 때까지 일본의 침략 양상을 보여주고,



- 부산광복기념관 포토존
- 전시실 입구 부산독립운동사 연표
- 부산 3·1 독립운동 의거도
- 의병장 전성범이 사용하던 장총
- 위패봉안소



부산 지역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지 919㎡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물면적 816㎡)로 지어진 기념관 건물은 현상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 작품으로, 1999년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광복회의 줄기찬 노력과 부산시의 지원, 시민들의 뜻이 합쳐져 개관은 2000년 8월 15일 55번째 광복절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안내실, 로비가 있으며, 홍보관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전시실은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징부를 지나면 '개항과 부산인의 독립정신'이란 주제로 개항 이후 부산에서 일어났던 저항운동을 사진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산 지역 독립운동이 일지로 정리되어 있고, 국채보상운동과 야학 등 애국 계몽운동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 코너에서는 1920년 부산경찰서 폭탄사건과 의병장 전성범이 사용하던 장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장총과 더불어 부산광복기념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료로는 안중근 의사 공판 속기록 번역서와 김일규 지사의 미결 수수감 당시 패찰 등이 있습니다. 일신여학교의 독립운동, 1920~1930년대의 노동운동, 일제 말기 학생운동이 차례로 전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광복의 환희' 코너가 나옵니다.

2007년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위패봉안소를 설치하여 400여 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2회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2회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이 9월 7일 오후 1시부터 민주공원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부스 운영과 공연을 진행하며 각 동아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민주주의' 상상 그림을 붙인 벽을 배경으로 동아리마다 동아리와 부스 활동을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앞마당인 가리사리마당에서 부산청소년겨레하나, 청청활동가, 시그마, 소셜 저널리스트, Want, 경제야놀자, 타임머신동아리, 초록물고기, 역시,역사가 교육박람회 부스를 운영하고 3시 30분부터 민주항쟁기념관 큰방에서 까리까리논까리, 악바리, W.A.T, 신명나는북소리가 문화예술 공연을 펼쳤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의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익히고,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인 2회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민주주의 미래는 우리!"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새로운 상상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



부산청소년겨레하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새 역사를 써나가는 부산지역 청소년 연합동아리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부산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광주의 진실된 역사를 배워나가며, 올바른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청청활동가

부산어린이어깨동무 소속 청소년, 청년 활동가 동아리입니다. 청청활동가의 '청청'은 청소년, 청년의 줄임말이자, 말과 소리를 똑똑하게 잘 전한다는 뜻의 한자인 '청창'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다양한 관심 분야를 심화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역사와 경제,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학술지와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심포지엄 또는 칼럼 등을 진행하여 동아리원과 견해를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소셜 저널리스트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동아리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년센스 퀴즈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ant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Want' 동아리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지구를 생각하는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Want"라는 이름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원하고, 미래의 지구를 생각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동아리입니다.



역사, 역사

사회적 참사와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과 새로움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야놀자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모여서 경제의 기본 개념을 쉽게 배우고, 합리적인 소비와 용돈 관리를 통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경제 관련 보드게임 등 놀이 및 학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임머신 동아리

역사를 깊이 탐구해 봄으로써 역사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원들끼리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리더십 등 사회에 필요한 역량도 향상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초록물고기

자연 특히 하천 생태계에 관심 가진 반송중학교 친구들이 소중한 하천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연생태 동아리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장의 하천 환경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봉선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광주광역시 지원하고, 청소년단체인 문화행동 'S#ARP'이 운영하는 시립청소년이용시설이며 '더나은센터'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및 사회참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창의플랫폼입니다.



까리까리눈까리

'건강한 청소년문화는 청소년 스스로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입니다.



악바리

부산 북구 만덕동을 대표하는 밴드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평등과 존중을 위해 활동하며 저희만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W.A.T

춤에 많은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직접 안무를 창작하여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아리입니다.



신명나는북소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맞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모듬북 동아리입니다. 함께 장단을 구상하고 여러 행사에서 모듬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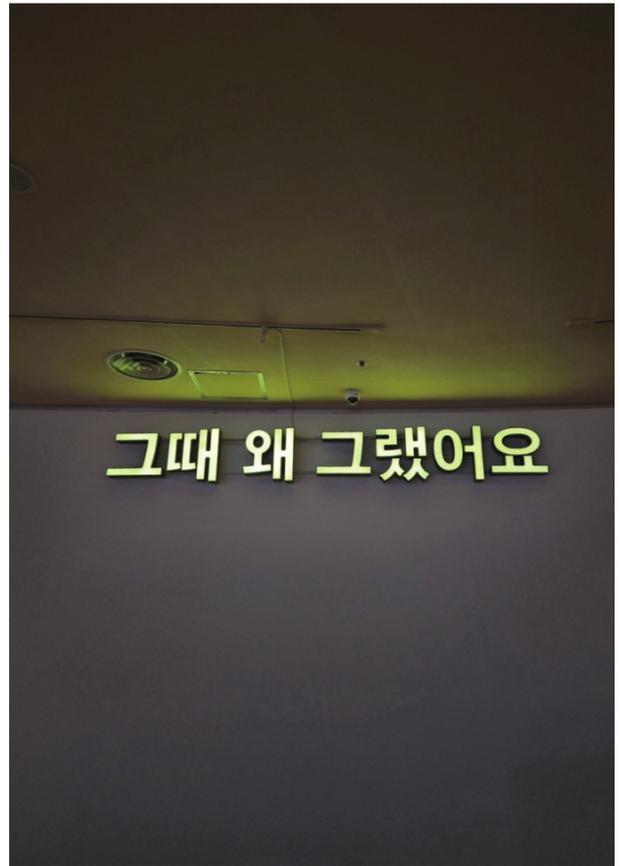


〈사랑으로 가득찼던 수많은 밤의 회상 -Memories of Many Nights of Love〉

밤과 기억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부산민주공원 기획전시 <사랑으로 가득찼던 수많은 밤의 회상-Memories of Many Nights of Love>가 9월 6일(금)부터 10월 20일(일)까지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사랑으로 가득찼던 수많은 밤의 회상-Memories of Many Nights of Love>는 '밤'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중심으로 그 안에 깃든 다양한 감정과 기억을 예술적 시각에서 탐구합니다.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남진, 김성철, 김정민, 김효은, 문지현, 박경인, 이광기 등 7명 작가가 참여하며 설치미술, 입체,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선명해지는 감성과 기억들을 담아낸 30여 점의 작품은 관람객들과 만났습니다.

<사랑으로 가득찼던 수많은 밤의 회상-Memories of Many Nights of Love>이라는 전시 제목은 서경식의 『나의 미국 인문 기행』 속 따스한 그림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벤산이 릴케의 시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여 작업한 연작 중 하나로 연인으로 짐작되는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하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모습의 흑백 판화 작품입니다. 밤의



이광기 그때 왜 그랬어요



김효은 0-100's collection (ed.50)

김성철 고개 숙인 별



고요함과 감성적인 깊이를 담아내는 이 작품처럼 이번 전시도 감성적인 접근으로 서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벤산의 작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상 전시를 통해 독자들이 각 작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통해 깊이 있는 정서적 울림을 경험하며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내면의 평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세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주제를 통해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했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 시민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메



김남진 우주토키

김정민 전달된 기억삶의 잔여 혹은 침잠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삶의 그림들





문지현 가짜꽃



박경인 지상의 집합체

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며,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 밤이라는 평범한 주제를 넘어서, 서로 다른 세대와의 감정적 소통을 경험하게 되며, 민주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시 기간 동안 드로잉 체험 프로그램 'Art in Memory'을 진행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자신의 일상 속 소중한 순간을 그림으로 기록하며, 예술적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드림캐처 만들기 <캐치 마이 드림>'도 10월 5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층 체험활동존에서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드림캐처 제작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는 되풀이될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조경숙 | 테크-페미 활동가

11월 6일, 정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의 수색을 위해 위장 수사를 확대하고 수사관이 피해를 접수하였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해당 영상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담겼다. 그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 및 예방할 수 있는 기술에 R&D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이토록 빠르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었던 건, 아무도 모르게 잇힌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TF는 법무부 산하에 조직되었으며, 당시 미투 운동의 상징이었던 서지현 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n번방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때의 일이다.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n번방을 뿌리 뽑고 디지털 성범죄가 발 들일 곳 없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기 위해 야심 차게 구성되었다. 가수 핫펠트, 영화감독 변영주 등 대중문화 예술인까지 포괄하는 인적 구성에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던 TF였다. 당시 TF에서는 형사사법체계, 양형규정, 수사규칙, 특정 산업군 내 성폭력

2021년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당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제도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일련의 주제들을 두루 살피며 굵직한 제도 개선안들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당시 TF를 통해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계류된 채 없어지고 말았다. 해야 할 일이 산적했고, 실제로 해왔던 일도 많았지만, 이 TF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한 달 만에 강제 해체됐다.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나 싶었던 법안들이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다시 생명을 얻었다. 서울대와 인하대 등 대학 내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와 전국 곳곳의 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기 때문어야 가능했다는 게 씁쓸하다. 처음 그 법안들이 발의되었을 때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면, 그 많은 피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이렇게 속수무책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 법안이 발의되었던 바로 그때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빠르게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던 건 아닐까.

딥페이크 성범죄가 뭐길래

딥페이크(DeepFake)는 AI 기술의 한 종류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 거짓을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이다. 올해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음 알려져 겨울에 들어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 또는 불법성착취물 영상이나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언론에서 주로 보도되었던 서울대, 인하대, 부산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 등의 가해자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공유된 영상을 보며 가해자들은 서로 해당 여성에 대한 성희롱,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직접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들을 보내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진의 가해자는 피해자 60여 명에 대해 이러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400여 개나 제작하여 공유했으며 인하대 딥페이크 사진의 경우에는 그러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공유받은 참여자들이 1,200여 명에 달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이들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AI 모델을 사용해 직접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많은 수의 가해자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 제작을 ‘구매했다. 지인들의 사진을 보내면 해당 사진과 성 착취물 영상을 합성하는 일종의 ‘봇’이 있어서, 해당 봇을 통해 돈을 내고 영상을 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제작하는 데에 드는 돈은 고작 몇천 원 수준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신뢰를 붕괴하는 문제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직접 강간당한 건 아니잖아요?”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너무나 쉽게 일축하곤 한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체로 지인 관계라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필요하므로, 그의 사진을 얻어 낼 수 있도록 가까운 관계여야만, 최소한 카카오톡 혹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친구를 맺은 사이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내 주변에 있었던 누군가가 내 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나를 희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 요소가 된다. 내 세계가 안전할 수 있다는 감각과 더불어 주변인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하는 여성들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 신뢰가 붕괴하는 문제다. 같은 교실에 있는 동급생이, 같은 과의 친구가, 단체 소통방의 구성원이, 직장동료나 제자가 나를 ‘능욕’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여성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내몰린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가족, 나의 동료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장 반인권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2024.08.30.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 분노의 불길 <딥페이크 성범죄 OUT 선언문> 중)

딥페이크 성범죄, 기술 발전의 문제일까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일까? 이 질문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이용된 AI 기술은 기술 발전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딥페이크’라는 것만 다를 뿐, 우리는 사실 이와 비슷한 성범죄 사례들을 계속해서 목격해 왔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여성 기자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남성 기자들이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그들에 대해 외모 폼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지 않았던가. 여기에 딥페이크 영상만 개재되지 않았다뿐이지 그 실상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매우 유사하다. AI 기술로 인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었던 건 맞지만, 그러한 영상을 은밀하게 돌려보고 여성을 희롱하는 문화는 이전에도, 지금도 있다. 기술 발전은 거들 뿐, 결국 그러한 남성 문화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야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랄 수밖에 없는 말을 들었다. “합성하는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합성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이야기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문제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전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희화화하는 질문이 등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딥페이크가 문제인 건 아니라는 말이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동의 없이 쓰는 일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흑백요리사>를 예시로 들며,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요리사들의 얼굴이 이런저런 개그 영상에 합성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단번에 “재밌게 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한 영상을 성범죄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밈’ 혹은 ‘짤’ 처럼 만들어지는 것이니 재미로 봐야지 않겠냐는 말이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재미있다고 해서, 그게 곧 재미인 걸까? 당하는 사람도 그게 재미있을까. 그렇게 말한 사람을 탓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기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이미 <스노우>와 같은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주 얼굴을 합성하고 그것을 놀이문화로 여겨온 탓에, 놀이와 폭력이 구분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건 아니었을까. 떠올려보면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미지를 합성할 때, 그 얼굴이 본인의 얼굴이 맞는지 묻는 절차가 없었다.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을 그런 방식으로 접해왔으므로, 누구의 얼굴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합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았는지 모른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보다는 더 넓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착취적 문화를 가리키고 있다. 물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기술적 문제를 떠나 우리 일상의 어떤 부분을 뜯어고쳐야 이러한 문화가 뿌리 뽑힐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소라넷, 화장실 몰카,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과 성을 끊임없이 훑쳐보고, 촬영하고, 유포하고, 이제는 심지어 합성하기까지 하는 이 집요한 폭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만 확실한 건, 그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일은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이야기



민주공원 개관 25주년, 공원과 함께해온 추억도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이 담긴 추억의 사진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임님 2024년 11월

가을이 성큼 다가온 휴일 오전, 아빠 손을 붙잡고 나가자는 아들의 성화에 민주공원으로 나들이 나가요.



김*영님 2024년 9월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 한마당에서 제가 직접 재활용 부스 체험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민주공원으로 체험학습을 온 적이 있습니다. 뜻 깊은 추억으로 잊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놀러 오게 되었어요.



홍*은님 2024년 10월

서구 한마음 어린이집 아이들과 거미입니다. 민주공원 산책 중에 만난 거미를 잡아 가까이서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심각하고 재밌고 신기하기도 한 아이들의 마음이 보인답니다.



차*득님 2024년 9월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 구경왔어요. 집이 민주공원과 가까워서 자주와요. 여름엔 연못 개구리도 보고, 옥상 전망도 멋있어서 외부 손님들오면 자주 들리고요. 큰애는 3·1절 그리기 대회에 참가해서 상도 탔어요.



전*혜님 2021년 9월

코로나가 한창인 때, 집에만 있다가 민주공원에서 재미난 행사를 하길래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녀왔었습니다. 미술 학원에서 배우던 천편일률적인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이 좋았어요. 아이도 두고두고 그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장*화님 2021년 4월

4.27 판문점선언 3주년맞이 행사에서 부산여성회 노래패 '용감한언니들' 공연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하자는 마음으로 노래했어요.





정*주님 2015년

2015년 민주공원 앞마당에서 '평화큰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큰잔치 앞마당에서 줄넘기를 하기도 하고, 골든벨 시합이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8년 평화큰잔치의 마무리 공연 사진입니다. 글마루도서관에서 거둬들인 노래 연습과 리허설을 마치고 많은 관중 앞에 섰던 아이들입니다.



정*연님 2012년 9월

어린이 책잔치 때 딸의 친구들과 행사에 함께했었습니다. 퍼즐, 책으로 징검다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기억에 남네요.



강*희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0일 민주공원 예술문화 축전에 부산학부모연대 풍물동아리 난타 공연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추억이네요~

민주공원에서 찍은 반려동물 사진



전*원님 2024년 9월

집에서 가까워서 가끔 강아지랑 산책하는 민주공원:)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풍경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곤 했는데, 강아지와 함께 하는 이벤트에 우리 강아지랑 추억의 사진을 남겨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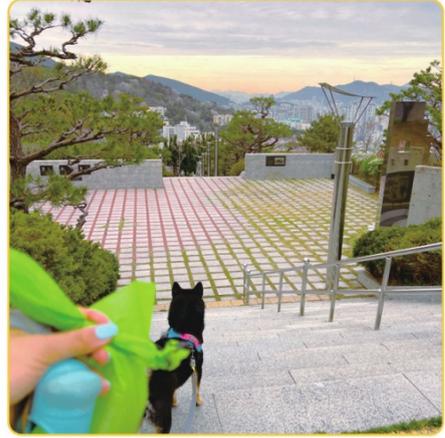
오*희님 2024년 10월

공이와 함께한 부산중구 여행!
날씨는 흐려도 너무 평온하고 좋았던 민주공원♡



오**거님 2024년 10월

강아지와 힐링.
민주공원 너무 좋아요~~♡



김*정님 2024년 4월

민주공원 산책로만 다니다가 갑자기 올라가자고 하는 마리에게 끌려 올라갔더니 이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공원에서 내려다본 부산의 풍경이 너무 예뻐서 매번 선물받는 기분으로 산책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님 2024년 11월

주말에 민주공원에 강아지랑 산책을 자주해요. 봄에는 겹벚꽃도 볼수있고 산책하기도 운동하기도 좋은곳이에요.

민주공원 개관 25주년 맞이 대시민 이벤트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기간연장!!

- 기간** 게시일 ~ 11.30(토)
- 대상** 민주공원에 추억이 담긴 누구나
- 접수** 네이버폼,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결과** 2024. 6월 ~ 12월 중 수시 발표
- 시상** 50명 내외, 모바일 음료교환권 발송
- 문의** 051-790-7473(시민·회원사업담당)



QR코드 간편 신청하기

1. 사진, 이야기 신청은 각 분야별 1인당 3건 이하로 가능합니다.
2. 방문 접수 시 인화 사진은 민주공원에서 스캔 접수하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안내문 및 신청서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에서 찍은 반려동물 사진을 보내주세요!



민주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한 사진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선정을 통해 음료교환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 접수방법 : 상단의 큐알코드로 접수

기억해야 할 사람들: 민주열사 명패달기 프로젝트

'민주열사의 집' 명패 제작

1,895명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민주열사의 집' 명패를 제작했습니다.
민주열사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로고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불꽃 형상 로고



민주공원의 햇불 형상의 명패 받침과 함께 제작

명패 전달 및 부착

지난 9월 역사 유족분들을 찾아뵙어 추석 인사와 함께 명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박종철 열사



이태준 열사



황보영국 열사

뜻깊은 기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故이정어머니 민주통일장 영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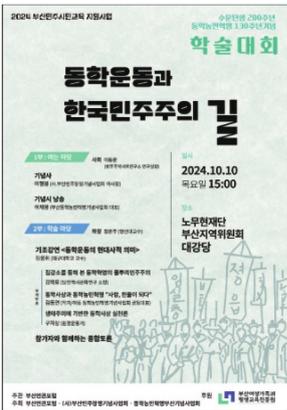
故이정어머니 민주통일장 영결식이 10월 18일(금) 오전 11시부터 민주공원 가리사리마당에서 엄수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던 이정이 어머니, 자주 평화 통일과 인권, 민주주의에 헌생을 바치신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길에 많은 이들이 모여 그 뜻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장선화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약력보고를, 송기인 삼십장례위원장과 5·3동의대항쟁 당시 학생이었던 윤창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본부장,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부산민예총 소속 예술인들의 진혼무와 헌곡도 이어졌습니다. 유족인사와 호상인사를 마지막으로 헌화를 하며 이정이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두가 함께 떠를 잇듯 만들어 인사했습니다.



2024 부산민주공원 생활예술문화축전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청년 예술 동아리들이 만들어가는 2024 부산민주공원 생활 예술문화축전 '청(소)년 예술제'가 11월 2일(토) 오후 3시 민주공원 큰방과 작은방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소속 유일한 중앙댄스 동아리인 마프와 청춘과 기억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기타 동아리 F.G.C, 스트릿 댄스 동아리 부경대학교 UCDC, 부산대학교 흑인음악동아리 라이머니,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대표하는 신바람 응원단이 함께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온 노인들의 평범하고 특별한 인생을 그린 작품 <소풍 같은 인생> 공연도 열렸습니다.



동학운동과 한국민주주의 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인권포럼, 동학농민혁명부산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인권포럼에서 주관하는 수운 탄생 200주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학운동과 한국민주주의 길>가 10월 10일(목) 오후 3시부터 노무현 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동학농민운동기념사업회 허채봉 대표가 기념사를 낭송하며 학술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김홍희 대구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동학운동의 현대사적 의미>를 시작으로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의 <집강소를 통해 본 동학혁명의 풀뿌리민주주의>, 김동연 작가 겸 하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사람, 한울이 되다">, 구자상 환경운동가의 <생태주의에 기반한 동학사상 실천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와 함께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당극 '신 놀부뎐'

고전 소설 흥부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남녀노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당극 '신 놀부뎐'이 11월 9일(토) 오후 1시 민주공원 작은방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놀부와 착하지만 게으른 흥부의 이야기로 기존 흥부전에 반전 요소를 가미한 '신 놀부뎐'!

고전 소설 흥부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은 요즘 세상에 제비 때문에 부자가 되고 제비 때문에 पै가망신하다니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 법이나 합니까? 혹여 못난 흥부만 칭찬하고 무고한 놀부만 비웃으며 짓밟았을지도 모를 일! 허서 놀부 입장에서 흥부와 놀부 두 형제 이야기를 다시 풀어봅시다! - 연출 의도 중



민주공원과 함께하는 2024년 11월 민주달력

11월 민주달력에서 제33회 민주시민상 수상자들의 모습과 가을 저녁 열린 <민주시민상 33주년 기념 그때 그 시절 부미길 야행 그리고 민주시민상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금지곡 음악회> 모습을 만나보세요!

- 11월 휴관일은 4일, 11일, 18일, 25일입니다.

-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사진 · 이야기 공모전, 4월 22일~11월 30일,

민주공원 홈페이지 및 SNS 참조 ※기간 연장

- <2024 부마민주항쟁 아카이브 순회전>

11월 1일~12월 8일,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

- 생활예술문화축전 '청(소)년 예술제', 11월 2일, 민주공원 큰방, 작은방

- 2024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마당극 '신 놀부단', 11월 9일, 민주공원 작은방

- 민주공원 기획공연 '해피 해프닝', 11월 23일~24일, 민주공원 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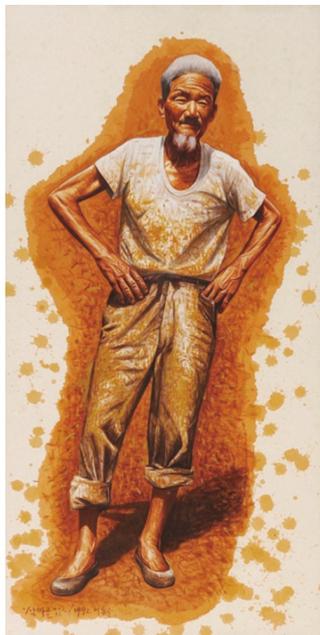
- 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9월 10일~11월 30일

※ <민주달력>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수탁 · 부설기관의 소식과

회원 혜택 알림, 민주주의의 관련 날짜를 안내합니다.

※ 민주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 달의 민중미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매달 '이 달의 민중미술'을 선정하여 회원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의 민중미술 작품을 지면에도 소개합니다.

♣ 10월의 민중미술 : 삼박골 김씨_이종구

<삼박골 김씨>는 농촌의 현실을 담아낸 초상과 풍경작업을 즐기게 해준 이종구의 작품입니다. 이종구가 그려낸 극사실주의 농촌은 우리 시대 현실을 지탱하는 보루이자 그것이 파괴된 폐허의 마당을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토 빛으로 물든 농부는 대지와 함께 살아온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늙은 농부의 주름진 얼굴은 땅 주름, 그 온몸은 무릇 땅임을 상징합니다. 마치 삼박골 김씨가 "너거들 다 떠나도 나는 짝다리 짚고 내 일 할란다."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도 노동과 생산을 이어나가는 농부 김씨와 그림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삶을 억압하는 시대의 폭력에 대항하는 이종구 화가처럼, 10.16 부마민주항쟁의 불꽃을 다시금 피워 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문의 www.ohminju.or.kr | ☎ 051) 790-7477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 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 가입 >

-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
- ◆ 민주공원 홈페이지(www.demopark.or.kr)

큐알(QR)코드 간편가입 ▶



· 전화 : 051-790-7473 (회원사업 담당)
· 이메일 : byeol90@demopark.or.kr

👉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행사, 교육활동
우선알림과 혜택



회원 간 교류활동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이달의 민중미술 작품
문자 발송(월 1회)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공연 전시 관람
특별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식지 <민주공월>을 잘 보고 계신가요? 전 하고자 하는 이야기, 더 잘했으면 하는 쓴소리, 응원의 한 마디 가리지 않고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미지 속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로 접속하시어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forms.gle/CWwfwDhyGc8ZCsr5>



— 문의 www.facebook.com/groups/IDSDEMO | ☎ 051) 790-7482



성찰과 전망 제40호 출간

11월 21일 목요일 성찰과 전망 제40호가 출간되었습니다. 기획 논단으로 '뉴라이트 역사학의 정치운동과 전쟁통일론'을 실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학은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사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던 포토 에세이가 '반나절 다대포의 가을'로 돌아왔습니다. 시민사회 현장은 '위험의 이주(移住)화', '기후정의' 문제를 다루었고, 소설가 길남씨는 예의 그 활달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조내기 고구마에 얽힌 이야기들을 줄줄이 풀어놓았습니다. 그 밖에 많은 읽을 거리와 볼 거리로 가득한 성찰과 전망 제40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희망일의 30일 전~5일 전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해설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늘펼쳐보임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2.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공원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3. 민주공원 '가을' 숲체험

시니어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거닐어 보고, 다양한 나무와 열매를 살펴보는 숲체험

4. 민주공원 숲 스토리투어

시니어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 곳곳에 위치한 기념식수를 찾아보는 교육 프로그램

2024 민주공원 기획공연 <해피 해프닝>

2022 아시테지 겨울축제 제30회 어린이연극상 단체부문 특별상 수상작 학교 - 학원 - 집의 굴레 안에서 지쳐가는 아이들의 일상. 하지만, 그 속에도 분명 반짝이는 순간들이 숨어있다. 옛 추억과 현재의 즐거운 경험이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세대를 초월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 ◆ 공연일시 : 2024년 11월 23일 ~ 24일
- ◆ 공연장소 :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큰방(중극장)
- ◆ 관 람 료 : 전석 1만원
- 얼리버드 예매 50% 할인(11/9까지)
- ◆ 문 의 : ☎ 051-790-7412



부마,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다.

2024 부마민주항쟁 아카이브 순회전

JEJU 2024. 8. 2.(FRI) ~ 10. 20.(SUN)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

BUSAN 2024. 11. 1.(FRI) ~ 12. 8.(SUN)
부산민주공원 기획전시실

“
민주공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